

모
계
사
회
가
온
다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대다수 가정에선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일손이 많을수록 좋았다. 힘이 센 장정(壯丁)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손을 덜 수 있었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된 것도 남아 선호사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의 말처럼 정보화사회가 온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지적 창의력을 생산수단으로 만드는 무형의 정보가 기반이 되는 시대다. 그 배경엔 인력과 기계를 생산수단으로 공업이 창출한 물질적 풍요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시대엔 정적이고 치밀하며 섬세한 능력을 우선 요구한다. 생계를 꾸리거나 일을 하는데 농경사회에서 주력 수단이던 장정의 힘은 소용 가치가 떨어진다. 육체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은 오히려 '3D'라 해서 푸대접하거나 기피한다. 이러한 능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것들이다. 따라서 육체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센 남성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경사회 땀 확고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산업혁명 이후 점점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주력 업종에서 남성의 육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강도와 반비례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계사회가 있었다. 원시 공산사회 때다. 당시의 주요 생산수단은 석기여서 생산력은 아주 낮았다. 토지와 산림을 공동 소유하고 남녀노소 모두 힘을 다해 일을 해야 겨우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축적할 수 있는 여분의 부가 없으니 남녀의 사회적 지위나 지배관계에 불평등이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집안 일이나 애를 키우는 등의 일을 중요시 여겨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동체가 가족으로 분화하고, 가족 중에도 힘이 센 남성 중심으로 부의 사적 소유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성 중심의 사회가 무너졌다.

이는 현대에 시사점이 크다. 원시시대엔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육아와 가사가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득세했다. 하지만 지금은 물질이 풍부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산업

자체가 점점 여성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 중심 사회가 예상되는 것이다.

독일의 공산주의자이자 경제학자인 마르크스(1818~1883)는 인류의 경제발전 단계를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사회 → 중세 봉건사회 → 근대 자본주의사회 → 공산주의사회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경제 생활 방식의 기본 틀이 변할 때 사회제도도 함께 바뀐다는 그의 생각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원시 공산사회 이후 지금까지 남성들은 산업의 조류에 맞춰 육체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여성보다 늘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원료나 생산수단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두뇌다.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지적 창조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지 원력을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사회에서 최소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진다.

게다가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도 여성들에겐 호재다. 인류가 존속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려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복지를 서두를 것이다. 또 힘이 필요한 제조업엔 지속적으로 기계가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성에게만 있는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굴레가 아니라 남성이 갖지 못한 능력에 속하게 된다.

정보화사회는 여성을 차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 확실한 여성 중심의 사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는 남성 중심 사회의 환상을 충격 없이 벗어나려면 학교 교육이 뒷받침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직업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남성들은 이제부터라도 가사와 육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요리를 하거나 시장 보는 훈련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PPFK**